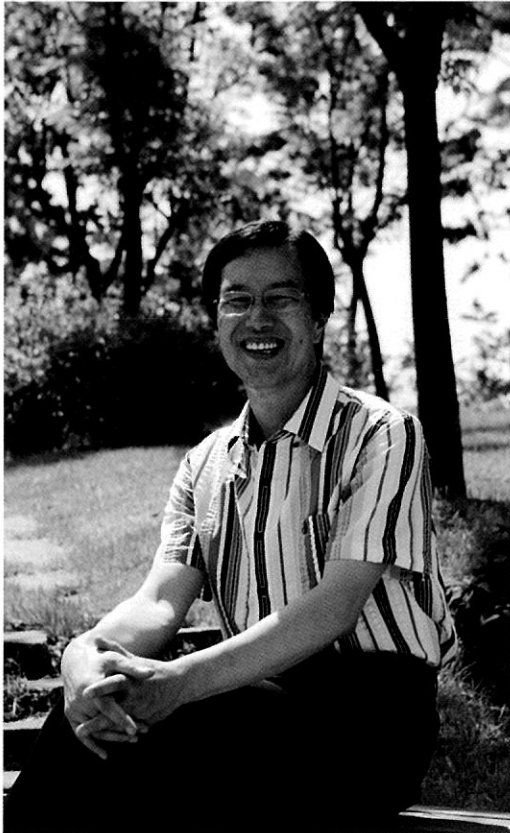


한 그루 나무이고 싶어라

조연환 | 천리포수목원 원장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19세에 최말단 임업직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산림청장을 끝으로 38년 4개월 동안 공직에 몸담았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드리면 얼굴을 한 번 쳐다 본 다음 “공무원 같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한다. 공무원이라고 명함을 드렸는데 공무원같지 않다니... 칭찬일까? 욕일까? 말하는 분의 표정으로 보아 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공무원에게 '공무원 같지 않다'는 인사가 칭찬일까? 교수님에게 “교수님 같지 않으십니까”라고 인사하면 칭찬이 되는 것일까? 교수님이 교수님다워야 하듯 공무원도 공무원다워야 하지 않을까? “참 공무원다우십니다”라는 말이 칭찬이 되어야 할 것이다.

40년 넘게 나무와 함께 살면서 듣고 싶은 인삿말이 있다. “꼭 한 그루 나무 같습니다.” 이런 인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 한 그루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무처럼 정직하고 나무처럼 성실하고 나무처럼 변함없이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무는 한 번 정해진 자리를 스스로 옮기는 일이 없다. 제자리가 음지라고 양지를 부러워하거나 남이 서 있는 곳이 탐난다 하여 시기하거나 모함하지 않는다. 오직 제자리에서 한평생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나 아낌없이 베푸는 삶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를 보아서 그렇다는 말이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럼 누구일까? 아무래도 나무일 것만 같다.

“그럼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신다. 꼭 집어 어떤 나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불경(不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나무가 들으면 노발대발 할 것이다. 네 주제에 감히 나무가 되겠다고... 그렇지만 한번 꿈 꾀 본다. ‘내가 한 그루 나무라면 어떤 나무일까?’ 늘 푸른 상록수(常綠樹)는 아닌 것 같다. 누구보다 변덕스럽고 좋고 싫음이 곧바로 얼굴에 묻어나는 성질이니 상록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그럼 봄되면 잎피고 여름되면 우거지고 가을되면 곱게 물들어 겨울엔 홀로 지내는 낙엽수(落葉樹)일까? 계절따라 날씨따라 변하는 모습이 많이 닮아 보인다. 그래 한 그루 나무라면 상록수는 아니고 낙엽수이겠지. ‘낙엽수 중에서는 어떤 나무일까?’ 낙엽수 중 가장 많은 나무는 참나무이다. 사실 참나무란 나무는 없다. 참나무 가족이 있을 뿐이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를 통틀어 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가 좋아보인다. 4남 5녀, 9남매 우리 가족을 닮았다. 제 이름보다는 참나무 가족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는 것도 그렇다. ‘참나무 중에서는 또 어떤 나무일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 오늘도 14,000여 품종의 나무와 풀들이 터잡고 살아가는 천리포수목원을 서성이고 있다. 딸 둘 가진 우리 며느리에 같이 제 몸 치장할 여유도 없이 오직 6월의 태양 아래 자식들 키우느라 여념이 없는 나무들을 보며 ‘나도 한 그루 나무가 될 수 있겠니?’ 물어본다.

한 그루 나무이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한 그루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누가 이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이 길을 찾아 서성이는 초보 수목원장에게...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보은농고를 졸업하던 해인 1967년 19세에 9급 임업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우주구천동 덕유산 산막에서 산간수로서의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재직 중 1981년 제16회 기술고등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하였으며, 산림청에서 계장,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2004년 7월 제25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하였다. 38년 4개월간의 산림공직 생활을 마친 다음 생명의숲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한국숲재단 이사장 등 숲관련 시민사회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리포수목원 원장으로 나무와 함께 살고 있다. 2002년 공무원문제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며 저서로는 『그리고 한그루나무이고 싶어서』와 『숲들의 눈물』이라는 시집과 자전적 산문집 『산이 있었기에』가 있다.